

38. 도장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골수이형성증후군

성별 남 **나이** 52세 **직종** 도장업 **업무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서OO은 2005년 5월 12일 특수정기검진결과 빈혈치수가 정상치보다 과하게 떨어져 사내 보건관리실 내원하여 면담 후 OO병원 재검사 및 2006년 1월 OO대학병원 정밀(골수)검사결과 골수이형성증후군(MDS)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서OO은 1981년부터 도장작업을 24년간 하였으며 주된 작업은 전처리 그라인더작업(용접된 부위나 잘못 칠해진 도장 부위등 튀어나온 부분을 매끄럽게 갈아내는 작업), 신너크린업(그라인더로 갈아낸 부위를 신너로 닦아내는 작업), 터치업(신너로 닦아낸 부위에 붓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 스프레이 보조업(도료 준비 및 배합, 줄잡이작업등 주사수를 보조하는 작업)이었고, 주로 탱크안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작업시간의 50%이상). 스프레이 보조는 주사수와 탱크에 같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도료와 신너, 경화제를 사용하였고 2004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결과로 보면, 벤젠의 검출은 없었으나, 과거 역학조사에서 조사한 작업환경 측정에서는 벤젠 검출이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30년동안 매일 한 갑씩 흡연하였으며, 술은 주 2회에 소주 반 병에서 한 병정도 한다고 하였으며, 과거 다른 병력은 없었다고 한다. 부친은 70세에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다른 가족력은 특이사항 없었다. 건강검진 결과 2004년에는 혈색소수치가 정상이었으나, 2005년 건강검진에서 혈색소, 백혈구 수치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2005검진에서 혈액수치의 이상을 보여서, 부산OO병원에서 골수 검사하에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받고 난후, 현재는 혈액검사및 약물치료하고 있으며, 경과관찰하고 있다. OO대학교 혈액종양내과에서 실시한 골수 검사 결과는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아형은 refractory anemia 이다.

4. 결론: 서OO의 골수이형성증후군은

- ① 골수검사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 받았고,
- ② 도장작업을 24년간 하였으며 도장 작업을 전문으로 하면서 도료와 신너, 경화제를 사용하면서 벤젠에 저농도이지만 장기간 노출되었고, 과거에는 현재보다 더 많이 노출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 ③ 골수이형성증후군은 벤젠노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과거 장기간에 걸쳐 누적 폭로된 벤젠에 의해 골수이형성증후군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